

# 제주사회복지신문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복지시설정보제공

도사회복지협, 모바일 앱 '제주복지통' 개통  
1,084개 사회복지시설 위치정보 등 담아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제주복지통'이 개통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회복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에서는 그동안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기본현황을 비롯해 시설·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후원과 자원봉사내용을 담은 '제주사회복지편람'과 분야별 '사회복지시설·단체 현황표'를 각각 격년제로 발행하면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현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분야별·지역별 사회복지시설·단체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주소록'과 '우리동네 사회복지시설'을 발간해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관공서 등에 무료로 배부해 왔다.

특히 인쇄물에 담기 어려운 상세 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사회복지 온라인 지도' (<http://map.jejubokji.net>)를 구축해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10일 개통된 '제주복지통'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라



▲ 왼쪽부터 모바일 앱 제주복지통, 제주사회복지 온라인지도, 책자 제주사회복지편람, 우리동네 사회복지시설.

는 의미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가능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내 1,08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비롯해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가

능한 사회복지자원봉사인 증관리센터와 사회보험, 일자리 분야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 연결기능과 각종 폭력과 학대신고가 가능한 긴급전화 연결, 온라인 법률상담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보다 손쉽게 다양한 정보와 연결될 수 있

게 되었다.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제공수단이 기존 인쇄물과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확장됨으로써 도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함께하는 육아, 기쁨은 두배”

◀ 제주특별자치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회장 서석주)는 지난 달 10일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기념식은 나눔상자 전달식,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인구의 날 기념 퍼포먼스 모습.

### 지면소개

- 종합 ..... 2면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 총회 유치 확정
- 사회복지소식 ..... 4면  
"어린이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 즐거워요"
- 오피니언 ..... 6면  
시론·칼럼·법률홈더
- 기획 ..... 7면  
시설탐방(107)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 '2019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가족들의 단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 8. 30(금) 13:30 ~ 18:00
- 장소 : 조천체육관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및 16개 사회복지직능단체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개선 필요

## 강성의 의원 지난달 12일 간담회 가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환경도시위원회)은 지난달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간담회는 관련 단체, 인권 운동가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단체 네트워크 구성, 결혼 이민자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등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다문화 등과 같이 부정적, 차별적 이미지의 용어를 사회통합과 다양성을 포함시키는 용

어로 순화하는 노력과 함께, 결혼 이주민에 대한 부부교육, 한국어 교육 등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의 의원은 "지금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다문화 가족 중심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을 난민과 인권 등과 같은 근본적 문제점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관심과 정보제공,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이 주관하는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지난달 16~17일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도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해 아동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 인권 향상에 관한 교육, 아동학대 추방 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

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도내·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인권문제 등과 관련하여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동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강연에서는 강지영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가 나와 실제 성희롱, 성폭력 처벌 관련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성희롱의 정의와 성희롱 판단기준, 성폭력 및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방법과 실천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2019년 아동정책 추



# 제주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성황'

제주도는 지난달 6일 제주시청 광장에서 '2019 제주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마련되는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릴레이 버스킹 공연, 문막 콘서트 본선공연, 기념식 퍼레이드 등의 식전 행사와 함께 성평등 라디오, 홍보·가족 체험 문화마당, 성평



등 놀이마당, 나눔장터 등 부대행사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디딤돌상 및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열린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에

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손상민 브이픽처스 대표, 이민경·김명지 제주청년협동조합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제주청년들과 취업, 결혼, 육아 등 청년세대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7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육 274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2906개, ▲(주)쿵스토퍼 제주이도점=제빵 335봉, ▲금산서당골=돈육 7kg, ▲김치원=김치 10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377모,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279kg,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778개,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519봉, ▲모양=빵 130봉, ▲미인빵=빵 91봉, ▲비엔누아즈=빵 113봉,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생필품 100개, ▲신제주식품=오뚜기식품 16개, ▲싱싱부식=김치 23kg, ▲옥수한상사=두유 180개, ▲정필이오메기=떡 180개, ▲참새방앗간=떡 711개, ▲파파무베이커리=빵 5봉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 총회 유치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지난달 22일, 파리 현지에서 실시된 개최지 선정심사에서 4개국(그리스, 뉴질랜드, 대한민국, 르완다)의 치열한 경쟁 끝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86표 중 그리스 13표, 뉴질랜드 16표, 대한민국(제주) 44표, 르완다 13표로 대한민국이 과반수가 넘는 5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3년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 총회는 1951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해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국제행사로, 전세계 농아인 3,500여명이 참가해 농아인의 권리 증진과 문화·정책 교류 등이 이뤄지는 화합의 장이다.

총회 유치를 위해 도는 지난 1월,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총회 제주유치 약정서(도지사)와 유치제안서를 제출했으며, 7월까지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19일부터는 프랑스 현지에 장애인복지과장

및 농아인 협회 관계자 등 대표단을 파견해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등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으며 6월에는 세계농아인연맹 현지 실사단이 제주를 방문해 현지 시찰을 통해 제주가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총회 개최를 통해 278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한국농아인협회측 의견)와 함께 제주형 장애인복지정책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40,000	27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355,000	355,000
복지사업후원	1,005,000	655,890
푸드마켓후원	2,875,000	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인 : 고봉식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편집기자 : 김승지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대폭 인상 도, 5~50인 사업장 대상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구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도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2018년도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증가액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1% 인상(1인당 월 5만원)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을 구비해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분기별 1회(4월, 7월, 10월, 12월)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1/4분기에 152개 사업체·582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10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실시 제주시, 오는 11월 30일까지, 30명 대상

제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학령기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검진은 1학년과 4학년의 경우 학교 검진대상으로 제외 하고 아토피, 천식, 비만, 허약체질 등의 아동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장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실시한다.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아동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통한 건강한 성장이 이뤄지게 하고, 알레르기검사를 통해 아토피와 천식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가정 중 0세(임산부)부

터 12세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과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복지프로그램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신체·건강분야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 인지·언어는 유아창의독서, 기초학습지도 등 4개 사업, 정서·행동은 영화·공연관람 등 8개 사업, 부모·가족은 찾아가는 부모상담, 가족캠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65명, 2018년에는 57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해 참여 아동의 질병의 사전예방 및 올바른 치솔질 교육 등으로 건강한 치아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건강한 아동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 재충전 프로그램 호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는 지난달 13~14일 1박2일 동안 제주도내 일원에서 사회복지현장 근무자 Refresh 프로그램 '새내기 참가 시점'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도내 다양한 분야 사회복지시설·단체 신규 근무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강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현은영(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잘한 것 같다.”며



▲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 재충전 프로그램 참여자 단체사진 모습.

“앞으로 사회복지를 시작하는 새내기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다양한 기관에 사람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힘을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선(제주보육원)씨는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이웃 사랑 물품 기부

제주중부로타리클럽(회장 강대성)은 지난달 1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가 운영하는 기부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이웃사랑의 쌀400kg와 계란40판을 기부했다.<사진>

강대성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기본 주식인 쌀만큼은 가정에서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의 쌀 기부



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기부된 쌀은 제주도내 기초 푸드뱅크 3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다.

## 꾸준한 나눔 실천 훈훈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안석찬)는 지난달 10일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주한우인 역량강화 및 회원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한우농가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의 일환으로 한우(5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



회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상당의 한우 및 육류를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손뜻모아봉사회 창립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손뜻모아봉사회(회장 최미경) 창립 16주년 기념행사가 지난달 20일 대도식당에서 개최됐다.<사진>

이 날 기념식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원동수 회원(517시간 봉사활동)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상을 수여받았다. 최미경 회장은 “모든 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해 달려 나가며, 그동안 맺은 인연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며 행복한 봉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①

아우름(교육·학습)

“어린이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 즐거워요”



지역사회봉사단은 자신들의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욕구에 맞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2010년부터 142개의 봉사단이 위촉돼 교육·학습 등 8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우름(회장 최미세)은 지난달 15일 수정지역

아동센터에서 센터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봉사활동은 책 읽어주기과 함께 여름을 맞아 특별하게 준비된 과일빙수 만들기도 진행됐다.

아우름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고,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정서와 교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결성된 아우름은 2015년 6월부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돼 2017년부터 수정지역아동센터와 한울주간활동센터에서 각각 2회씩 월 4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15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미세 회장은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보다 봉사단원이 많이 줄었다. 봉사활동이 대부분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단원모집이 더욱 어려워져 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히기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일정 변경 없이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출 청소년 보호 협력 간담회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고민좌)는 지난달 12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시돌습비소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

이시돌습비소리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 중 가정보호가 어려운 상황의 소년범들을 교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 등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민좌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은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의 경우, 가출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각 상황에 맞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해결방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위하여 더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도사회복지협, 사회공헌 아카데미 열어

지난달 24일... 커뮤니티 임팩트 모델 등 소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가 주최하고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7월 사회공헌 아카데미가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에서 진행됐다.<사진>

사회공헌 네트워크 참여기업 관계자 및 도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아카데미는 강경구 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의 공사 주요사업과 사회공헌 사업 소개,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장의 커뮤니티

임팩트사업 소개, 서명지 CSR임팩트 대표의 커뮤니티 임팩트 모델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정보연 단장은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해준 공모형 사업의 형태가 아닌 지자체, 시민, 기업, 지역대학 등이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 필요한 것을 살피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방향을 지향할 것”이라며 “커뮤니티가 살아있으면 경제가 침체되었던 도시도 인젠가는 부활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 실시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지난달 17일 우도초등학교(교장 강승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사업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원을 받아 구좌읍·우도면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날 인식개선 사업은 다문화 만들기 체험과 캄보디아·중국·베트남·필리핀·몽골 등의 다양한 나라 의상, 베트남 띠가오며·필리핀 티니클링·중국 공주 등의 놀이 체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6곳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은 총 6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과의 1대 1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은 물론, 2차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의 주요서비스로는 일반건강관리서비스와 주장애관리서비스가 있다. 일반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과 일반장애를 관리하고, 주장애관리서비스는 지체·뇌병변·시각장애에 대한 전문관리가 이뤄진다.

건강주치의 이용방법은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의 병·의원 건강 주치의와 상담 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케어하우스 이용자 수익금 기탁

중증장애인시설 제주케어하우스에 거주 이용자 30명은 지난달 1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시설 내 자판기 수익금 150,000원을 기탁했다.

수익금은 시설 내 자판기 수익금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하다 이번 기회에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천해보기로 의견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

시설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고원평 회장은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식/마/당

(무순)

생활용품 나눔 상자 기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회장 강순희)는 지난달 6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설립 47주년 전도지도자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나눔상자 30박스(생활용품 270점)를 전달했다.

나눔상자는 전체 회원들의 가정 내 미사용중인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만들었다.

장애인 개인별 PT운동 진행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2019년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으로 더원트레이닝센터(대표 김상훈)에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인별 1:1 PT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별 PT운동은 상체가 발달한 장애인, 팔·다리를 잘쓰는 장애인 등 각자의 잔존능력을 살리고 취약한 부분을 발달시키며 개인의 신체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꾸준한 나눔실천 눈길



애경산업 제주지사(지사장 송기흥)는 지난달 17일 제주양로원(원장 김진우)을 방문해 삼푸, 치약, 세제 등 생활 필수용품을 전달했다. 애경산업 제주지사는 2018년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약 이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했다.

제주양로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용품을 꾸준히 후원해 어르신들의 청결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어르신 추억 여행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지난 6월 21일과 7월 5일에 구좌읍, 조천읍 지역 내 고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억을 만드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에코랜드를 시작으로 워터스카이쇼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상반기에는 약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도 문화생활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러브코칭 프로그램 진행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올해 3월부터 성인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러브코칭 프로그램 ‘Good Love’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성태도 및 예절, 자존감을 향상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가 있을 때 올바른 방법을 통해 건강한 이성교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전도신장장애인 볼링대회 개최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달 16일 팬코리아볼링장에서 신장장애인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제7회 전도신장장애인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볼링협회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신장장애인제주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문화체험 기회 마련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문정신)는 지난 6월 25일 센터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학습에서는 빛, 영상,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표현한 전시 ‘빛의 벵커:클림트’를 관람했다. 참여자들은 빛과 영상의 움직임을 손으로 만져보고 음악을 감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역아동센터 부모특강 운영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진은경)은 지난 6월 28일 제주올레여행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JDC 책가득 꿈가득 사업 부모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017년 베스트셀러 ‘엄마반성문’의 저자이며,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이우남 교장을 초청해,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랑의 쌀 전달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중앙로타리클럽 부인회는 지난 6월 24일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원화자)를 방문해 사랑의 쌀 500kg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제주중앙로타리클럽 부인회에서는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멘토링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는 지난 6월 27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멘토링 활성화지원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성화지원사업 제1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관련 안내사항 공지, 주요 사업 추진계획 안내 등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환경정비 봉사활동 실시



농협은행 제주업무지원단(단장 고정용)은 지난 6월 29일 직원 및 직원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를 방문해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원단은 이날 시설주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과 함께 직원들이 모금한 후원품을 전달했다. 지원단은 2008년부터 센터와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입소아동 점심식사 제공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 위치한 성진수산(대표 윤상-오연화)은 최근 제주몽생이·소나이그룹(대표 김완숙)의 입소아동들에게 점심을 후원했다.

성진수산은 지난 2년 간 제주몽생이·소나이그룹 입소아동들에게 정기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비, 후원금, 쌀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 아이들에게 베풀고 나눔의 가치를 몸소 가르쳐 주고 있다.

시론

### 나의 선택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올해가 어느새 8월로 접어들었다. 돌이켜보니 새해가 엇그제 같다. 이맘때면 내뻗거나 울조리는 말들, 아쉬움이나 후회스러움, 만족감이나 자랑스러움 등.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시계바늘은 짹짹 어김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결국 지금 이 순간조차도 새로운 시간이다.

최근 <예병일의 경제노트>에 올라온 글을 인용한다. “우리가 아직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말이다. 저자는 위기가 찾아온 후에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3년에 한 번씩

#### 실패는 혁신적 도전기회 제공

이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와서야 비로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도 괜찮다.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에 서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실

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실패는 지난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을 때 빛을 발한다. 실패는 혁신적인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삶 앞에는 많은 선택지들 펼쳐져 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우리는 결단을 주저한다. 솔직히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새뮤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대화.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말한다. “자, 우리 갈까?” 또 다른 주인공은 “그래, 가자.”고 응한다. 그러나 주인공 둘은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 대화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 분명 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했다. 그러나 정작 행동이 필요한 선택에서는 주저하고 만다. 이들 대화는 현대인들의 삶을 상징하는 블랙 유머다. 어쩌면 나약한 우리들 모습과도 흡사할지 모를 일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선택이 잘못됐을 때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네 삶이다. 그래야 새로운 현명함으로 다른 선택을 키워나갈 수 있다. 사

#### 잘못된 선택도 받아들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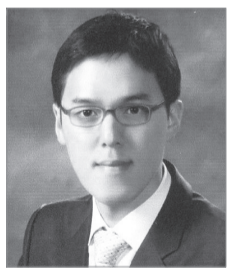
람 사는 맛이 나는 삶이 다른 건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이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다. 내가 내린 선택의 궤적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선택이 바로 나의 어제였고 나의 오늘이다. 나아가 그 선택은 바로 나의 내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나의 모습은 뭐가. 내 스스로가 내린 선택의 결과, 그 자체라 하겠다.



김범훈 (사)Geo-Jeju연구소 대표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63

### 소송에 드는 비용은?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일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다양한 비용 요소가 있지만 대개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중요하다.

인지액은 사법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이 인지액으로 부과된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식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려면 14만원의 인지액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통신과 운반에 대한 요금으로서 우편요금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현재는 1회 기준으로 4,800원이 적용된다. 소송에 몇 회의 송달료가 필요한지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는데 보통의 민사소송에서는 20~30회 정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사실상 소송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은 변호사 보수이다. 변호사 보수 중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소가' 2천만원까지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8%, 1억원까지 6% 등으로 적용이 되므로 3천만원 청구 소송에서는 3백만원, 2억원 청구 소송에서는 1,040만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패소한 자가 재판에서 진 비율만큼을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내가 3천만원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14만원의 인지액, 10만원의 송달료를 법원에 우선 내고 5백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100% 승소를 하였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인지액과 송달료 전액, 그리고 3백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칼럼

### 갯바위에 머물다

파란 하늘 맞닿은 수평선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동심의 상상력을 자극하던 바다를 나는 무척이나 좋아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어른들과 바다로 백중 물맞이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갯바위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낚아 올린 알록달록한 물고기가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그들이 부러웠다 그形形色색의 물고기들은 볼락·우럭·노래미 따위의 하찮은 잡어들이었지만, 굵디고운 물고기들의 잔상을 지금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내가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어 낚시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다 되어 간다. 어릴 적 바람을 성취한 셈이다. 조행(釣行)길은 소풍 가는 동심처럼 소박한 기대와 설렘이 고동친다. 오늘 대물 뱅에 돛이라도 입질하면 손맛이 짜릿하겠지. 막연한 설렘과 기대를 안고 갯바위로 향하는 길을 재촉한다.

갯바위 낚시터에 도착하면 갯내음 속에 확 트인 대자연과 하나가 된다. 여섯 시간마다 반복되는 조류는 파도가 되어 하얀 포말을 토해낸다. 사리가 되면 바닷속은 영겁의 세월을 이어온 암갈색 속살을 환히 드러낸다. 인공으로는 빛어낼 수 없는 오묘한 대자연의 위대함이다. 철썩대는

#### 낚시는 자연에 순응과 도전

파도 소리가 태고의 원음으로 다가오고, 끼루룩대는 갈매기 소리는 공간의 적막을 깬다.

낚시는 자연에의 순응과 도전이다. 수온과 수심, 풍향과 풍속, 물때와 조류 등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원초적 자연현상에 순응한다. 이에 목줄·찌·봉돌 등의 낚시채비로 자연에 도전하는 것이다. 조과(釣果)는 그날의 기상 여건에 좌우된다. 어제 오늘이 조과가 다른 변화무쌍한 대자연의 섭리를 범부(凡夫)가 어찌 알리오.

밀물 때가 되어 넓적한 갯바위에서 낚싯대를 드리운다. 낚시채비는 바다의 표면으로 강하하여 물속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류를 따라 가물가물 멀어져가는 찌에 온통 정신이 박혀있다. 고기를 잡으며 세월을 낚는 강태공도 이랬으리라. 인간사의 잡다한 상념을 잊은 무아지경이다. 낚싯대를 드리운 지 서너 시간이 흘렀지만 낚시가 예전 같지 않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무분별한 개발로 바다가 황폐해지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이다.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이 인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자연의 보존과 이용은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바람이 거세어지고 파고가 높아진다. 파도 속에 흩날리던 관념의 조각들을 추스

리며 주변을 정리한다. 살림망에서 파닥이는 몇 마리 고기를 밀밭 통에 옮겨 넣고 귀가를 서두른다. 서쪽 하늘에 태양은 곱게 번지는 노을 속으로 수줍은 듯 몸을 숨기고 있다.



문익순 수필가

시설탐방

(107)서귀포시노인복지관

# 행복한 노후생활 체계적 지원 '척척'

## 2016년 설립...어르신 1,361명 회원 가입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서귀포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서귀포시노인복지관(관장 김재경)이다.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작은 변화의 씨앗으로 커다란 행복을 만들어 가는 곳’을 미션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성화와 건전한 노년문화정립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복지관은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1,361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두영 팀장은 “복지관은 서귀포시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신다.”며 “어르신

들 대부분이 복지관이 설립되기 전에는 산책 위주의 활동으로 여가를 보냈지만 복지관이 설립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 하면서 즐거움도 찾고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며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매년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통한 의견 반영 재능기부 봉사활동·선배시민대학 진행도 호응

복지관은 매년 11월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로 이뤄진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명리학, 생활일어 등으로 구성된 교양교육 프로그램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익히는 정보화 교육, 체조, 댄스스포츠 등의 건강운동, 가요, 웃음레크리에이션 등의 취

미 여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상담사업과 의사진료 등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사업, 경로식당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 팀장은 “특히 올해부터 댄스, 노래 등 다양한 재능을 갖춘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척척 사업단’을 구성해 재능기부 공연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조모임인 선배시민대학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마을 경로당에 안전관리로 어르신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랑의 달팽이 기관과 함

께 서귀포지역 해녀 어르신,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와 실버카 지원사업, 2016년 재가노인 쌀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김 팀장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며 “재가사업, 등을 통해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승지 기자>



▲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서귀포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개 ① 엘린(원장 한봉금)

## 장애인 고용 창출·안정 노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 시설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10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제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주요생산물품 소개를 연재한다.<편집자 주>

#### ▲ 엘린소개

엘린은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광객 및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호텔엘린’ (숙박업)과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기술력을 갖춘



‘엘린클린’ (건물위생관리업)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적기업이다.

#### ▲ 호텔엘린

호텔엘린은 32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미나실, 소회의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장애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리프트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이 구비 되어 있다.



이밖에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숙박위생 점검 최우수 등급을 얻었으며,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튼튼한관광제주만들기 캠페인 숙박 분야 ‘우수업체’ 선정,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한국관광 품질을 인증 받는 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문의: 743-5600, ▲엘린클린(사진 위쪽)

엘린클린은 빌딩관리 전문(화강

석, 대리석, 카펫 등) 업체로 관공서와 호텔, 계단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첨단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엘린클린은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전국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전국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 대상을 받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752-0069



희망으로 함께한 20년

# 목지로 울드리

##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9 제주 나눔 대축제

2019. 9. 7.(토) 10:00~17:00 / 제주시민복지타운

###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2019. 9. 7.(토) 11:00

축하공연,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기념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다함께 하는 다짐 등  
※ 기념식에 참가하시는 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 「2019 제주 나눔대축제」

2019. 9. 7.(토) 10:00~17:00

<p>※ 나눔실천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인분 비빔밥 나누기 '삼촌 밥먹엉 갓새'</li> <li>• 나눔상자 만들기</li> </ul>	<p>※ 상설부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체험마당, 나눔홍보마당</li> <li>•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li> <li>• 나눔도서관 (도서기부, 교환, 무료배부 등)</li> </ul>	<p>※ 부대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li> <li>• 사회복지예술마당</li> <li>• 드론항공 RC자동차 경진대회</li> </ul>	<p>※ 학생자원봉사 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기간 중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에게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2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li> </ul>
--	--	--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